

제1회 한국카툰 장르활성화 프로젝트 신인작가 카툰공모전 수상작 선정공고

제1회 신인작가 카툰공모전에 수상하신 작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카툰창작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1. 공모전 개요

- 모집기간 : 2018년 1월 15일(월)~18일(목)
- 심사기간 : 2018년 1월 22일(월)~1월 31일(수)
- 수상작 발표 : 2018년 2월 12일(월)
- 시상식 : 2018년 3월 3일(토)

2. 수상내역

수상명	수상자	작품명	상금
대상	문천일	무제	500만원
금상	이정은	미세먼지 속 현대인	300만원
은상	박향미	달팽이 가족	각200만원(400만원)
	최해솔	무인도	
동상	김경재	시선	각150만원(450만원)
	이현정	빛을 만나다	
	최인수	오뎅탕	
특별상	변혜민	강도	각100만원(300만원)
	김효곤	비트코인 세상만사	
	정영화	2018 희망어플리케이션	
입선	마예지	동글게 동글게	각50만원(450만원)
	전희성	집으로출근	
	안병준	선택장애	
	이현빈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고	

	유령이에요	
양정인	요즘, 군중	
박진아	가습기	
최미성	폭탄시리즈	
장홍준	새해다짐	
김태호	사랑의 온도	

3. 심사평

총평

국내 카툰 공모전으로서는 첫 대회여서 응모하는 카툰니스트들이 공모전 성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사 방법은 예선에서 선정된 서른여섯 작품을 심사위원들의 독립적 평가 기준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많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1차 선정을 끝냈다.

선정된 작품 중 상위권으로 진출한 열세작품은 예선에서의 득점과 관계없이 다시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위원들의 토론 심사를 거친 후 그 순위를 결정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미지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카툰만의 독특한 형식의 작품에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과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카툰의 정의와 형식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심사 관점에 관한 의견이 먼저 조율되었다.

작품의 감점 요인으로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부정확한 작품, 작품의 질적인 측면이 기복이 심해 작품 간 편차가 큰 작가, 아이디어는 좋으나 화풍과 필력의 기본기가 부족한 응모 작품 등도 감점 요소로 삼았다

대상으로 선정된 문천일 작가의 작품은, 자신만의 고유한 화풍으로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메시지와 여백을 살린 예술적 표현방법, 그리고 일관성 있는 아이디어로 많은 점수를 얻어 선정되었다.

금상 수상자 이정은 작가는 선이 자유롭고 작가적 내공이 느껴지는 필력과 품위 있는 색감으로 호감을 얻어 선정되었다.

은상과 동상에 선정된 작품은 심사위원들 간에 치열한 주장과 토론이 끊이지 않아 그 수상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는 걸 밝힌다.

신진 카툰리스트 발굴을 위한 첫 번째 국내 공모전이라 대회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작가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보내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심사위원장 사이로

사이로 / 심사위원장. (사)한국카툰협회 명예회장

주제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내용만큼 형식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아이디어는 좋으나 자유로운 표현력 대신 안이한 화풍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독창적이며 진지한 작가적 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카툰은 글자 한 자도 없이 메시지를 전달해낼 수 있는 독창적인 장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하기로 했다.

임청산 / 대전국제만화연구소 소장. (전)국립공주대학교 영상예술대학 학장

카툰은 인쇄 매체에 노출 시킬 수도 있지만 갤러리용 작품으로도 확장 될 수 있는 만화 장르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다.

시상은 텍스트가 없는 카툰 부문과 말풍선이 있는 두 칸 또는 네 칸 만화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 했으면 좋겠다.

공모 작품의 응모 수량에 대한 조건도 향후에는 다섯 작품 정도로 줄여서 작가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좀 더 자유롭고 창의력 넘치는 기법을 선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조항리 / 만화이론가, (사)한국카툰협회 고문

말이 없는 카툰은 난해하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카툰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의에 너무 메시지 말자. 카툰 장르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합의가 필요한 과도기가 온듯 하니 이제 우리 카툰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지평 넓히기에 함께 고민하자.

강인선 / (주)거북이북스 대표

카툰의 맛인 해학과 유쾌함, 그리고 풍자가 투영된 작품은 없고 모두 어둡고 암울한 주제의 작품들 일색이라 지금 우리 사회의 암울함이 그대로 반영 된 것 같아 아쉽다.

이미지로 전달하려고 했지만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작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독자와의 소통에 실패한 작품이다.

조관제 / (사)한국카툰협회 회장. 전 (사)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응모작품들의 대다수가 주제와 아이디어의 폭이 협소해서 아쉬웠다.

주제에 따른 은유와 관조 등 표현 형식에 대한 연구와 사유가 부족한 것 같고, 자유로운 표현력 대신 흔히 볼 수 있는 유행을 따른 화풍들로 제출한 작품은 아쉬운 부분이였다.

4. 시상식 ※ 수상자 필참

-일시 : 2018년 3월 3일(토) 오후4시

(오후3시 40분까지 행사장에 도착 바랍니다)

-장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희 5층

주차문제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권장 드리며 부득이 자가용 이용시 근처 유료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 안내 : KT 신촌지사 최초 30분 2,000원, 추가 15분당 1,000원)

※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할 시 이대호 이사에게 문의 주세요.

T. 032-345-5365

장 소 |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5F 니콜라오희 (가톨릭청년회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T. 02-338-7830)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하차 2번출구 이용



5. 기타 안내사항

- 1)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이메일로 송부
 - 2월 21일(수) 오후 5시까지 coreacartoon@naver.com 로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식 이후 계좌로 상금 입금(4.4%제외)

2) 온라인작품 연재

선정되신 작가의 작품은 추후 한국카툰협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연재 될 예정입니다.

- 2018년 2월 19일 ~ 3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연재
- (사)한국카툰협회 www.coreacartoon.com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연동) www.facebook.com/coreacartoonassociation/

3) (사)한국카툰협회 정회원 등록

시상식 이후 협회 정회원으로 자동 등록

6. 문의

(사)한국카툰협회 이대호 이사 032-345-5365

사단법인 한국카툰협회

